

기억을 기록하고, 기록을 기억하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인턴십)에서의 여름
국어국문학과 양OO

매 학기 종강을 하고 나면 다 끝났다는 생각과 함께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에 대한 불필요한 보상심리 때문에 누구보다 늘어진 방학을 보내고는 했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무의미한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눈 깜짝할 사이에 개강이 찾아오기 일쑤였다. 하고 싶은 일이 뚜렷해지고 진로에 대한 가닥이 조금씩 잡혀가던 3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정말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활동을 하며 부지런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을 때 운이 좋게도 인문대학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었다.

평소 문화예술을 좋아하고 이와 관련된 계열의 직무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연이나 전시를 가까이할 수 있는 기관들을 찾아 지원하였다. 부끄럽게도 그 흔한 자격증 하나 없어서 우대사항에 넣을 만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었지만, 진로에 확신을 갖고 시작한 미술이론 부전공과 관련 수업들, 인문·문화융합 캡스톤디자인 수업에서 팀장을 맡아 전시 홍보 프로젝트를 이끌어내갔던 점들을 피력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신청 당시 희망했던 기관들과는 아쉽게도 인연이 닿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인턴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쪽 광주 토박이로 살았으면서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나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공간이었다. 기록관이 위치해 있는 금남로 근방으로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가봤지만 그곳을 지나면서 단 한 번도 기록관의 존재를 체감해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첫 출근 날에는 지도를 쳐놓고도 한참이나 길을 헤매기도 했다. 기록관에는 나 말고도 세 명의 인턴 학생들이 더 있었다. 같은 인문대 재학생이지만 학과가 달라서 처음 만나는 사이인 데다 나에게는 인턴 활동 자체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첫날은 정말 어색하고 긴장되었다. 기관에 도움이 될 만큼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으른 습관을 버리고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부지런히 살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의 가장 주된 업무는 영점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영상 기록물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수장고 내부는 관계자가 아니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보안이 매우 철저했으며, 온도와 습도 등 모든 환경이 기록물 보관에 최적화되어 있어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웠다. 영점수장고 안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양의 영상 기록물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다. 혼자였다면 한참을 작업해도 끝내기 힘들겠다 싶을 만큼 막막해보였지만, 여러 명이 투입되어 수행하다 보니 인턴 기간 동안 그래도 제법 많은 양의 기록물들을 조사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 작업을 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다큐멘터리부터 관련 인물들의 청문회 영

상, 초·중등 교육 자료, 당시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증언 채록 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영상들을 접했다. 광주에서 나고 자라면서 끊임없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 익숙하다 자부했지만,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보다 생생하고 적나라한 자료들을 시청하고 나니 업무 중임에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많이 힘들었다. 특히 가족의 죽음을 담담히 이야기하는 유족들의 인터뷰를 볼 때에는 감히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억눌린 슬픔이 느껴져서 몇 번이나 재생을 멈추고 훌쩍이기도 했다. 몇 줄의 객관적인 사실로 이루어진 역사를 배웠을 때보다 당시의 참상이 훨씬 절절하게 와 닿았던 업무였다.

가장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업무는 단연 제2수장고에서 보존하고 있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문서 원본 자료를 다룬 것이다. 80년대 당시 실제 행정 문서를 꺼내 와서, 오랜 시간이 흘러 삭아가는 철심을 조심스레 제거하고 훼손된 문서를 전용 테이프로 복원했다. 그 후 디지털화를 위해 매수를 집계하고 통으로 된 문서를 안전별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했다. 수기로 작성되어 간혹 알아보기 어려운 페이지도 있었고 80년대 자료이다 보니 한문으로 기재된 부분도 많아서, 자료를 파악하고 안전별로 정리하는 데 꽤나 애를 먹었다. 하지만 인턴 활동이 아니었다면 절대 접할 수 없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뿌듯함이 너무나 커서 전혀 힘들지 않았다.

또한 정리되지 않은 제1수장고 기록물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산화하는 일도 수행했는데, 이 작업 역시 방대한 양의 서류 문서를 일일이 넘겨보면서 확인해야 해서 굉장히 까다로웠다. 이외에도 사용한 기록물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요청받은 기록물을 찾아 전달하는 작업, 서가 재배치 및 도서를 정리하는 작업, 영문 성명서를 디지털 문서화하는 작업 등 전반적으로 기록물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사실 나를 비롯한 인턴 학생들이 원래 투입되었어야 할 곳은 전시 파트 보조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휴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록 관리 업무 비중이 늘어났다. 전시와 관련된 실무 경험을 쌓고 싶어 지원한 곳이라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당시 사람들의 간절하고 처절했던 기록물을 보존하는 데 미약하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뿌듯했다.

기록관 선생님들의 배려 덕분에 전시 파트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휴관 중임에도 해설사분들과 함께 전일빌딩245의 전시를 돌며 전시 해설 교육은 물론, 민주화운동의 상세한 정황과 참상을 구체적으로 보고 들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기획전시 <5월시판화전>, 전일빌딩245 기획전시 <묻고, 묻는다.> 등, 인턴 기간 동안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다양한 전시들을 빠짐없이 관람하면서 5·18을 더욱 폭넓은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무렵 나는 광주비엔날레와 국어국문학과, 전남대학교 LINC+사업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2020년 광주시민미술학교’ 프로그램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2020년 광주시민미술학교’는 광주비엔날레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 ‘MaytoDay’ 독일 켈른전의 일환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그 안에서 탄생한 광주시민미술학교(1983-1986)를 재

조명 및 재구현하는 프로젝트였다. 먼저 광주비엔날레와 미술의 방향성, 출판 및 영상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리서치, 인터뷰 등을 통해 전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타임라인을 제작하여 직접 전시를 구성하기까지 전시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였다.

우리 조는 광주시민미술학교가 탄생한 배경인 5·18민주화운동의 전반적인 과정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광주시민미술학교의 흔적을 찾은 후, 추가적으로 일반 시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행동한 사례들을 발견하여 전시에 활용하였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인턴을 하고 있던 덕분에, 기록 관리사님께 자료를 전달받고 학예사님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기록관과 협업하는 업무들에 앞장서며 이 프로그램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함께한 기록관 인턴과 ‘2020년 광주시민미술학교 프로젝트’는 5·18민주화운동의 발자취를 깊게 탐구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리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의 아픈 기억이 부정당하지 않게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기고, 낡은 문서들의 상태처럼 희미해져 가는 기록을 소중하게 보관하여 전하는 공간이었다.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광주 항쟁은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져준 중요한 역사로서 아직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광주 시민들이 많은데도,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쉬이 선동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는 한다. 이번 인턴 활동을 통해 역사의 왜곡을 경계하며 바로잡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기억하고 알려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지난 6월 막을 내린 드라마 ‘오월의 청춘’은 5·18민주화운동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를 집필한 작가 이강은 “마주한 한 줄 한 줄의 기록이 누군가에게 목숨을 건 투쟁이었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임을 알았다. 내가 읽는 모든 증언과 자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잃은 비극을 기억하기 위해 눈물로써 남겨둔 기록으로 느껴졌다.”라고 말했다. 기록관에서 두 눈으로 직접 보았던 수많은 기록들 역시 나에게 꼭 그런 의미였다. 1980년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몇 줄의 역사였던 5·18민주화운동이 자료를 한 장 한 장 펼쳐볼수록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 다른 이를 지키기 위한 목숨 건 투쟁,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이를 알리고자 하는 남은 이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다가왔다. 그저 방학을 부지런히 보내고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인턴이었지만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줄 만큼 큰 의미로 남은 시간들이었다.